

다문화가족 함께한 '世界一花'

고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울림축제

선운사복지재단이 위탁 · 운영하는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대원)가 세계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10월 13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고창 세계문화어울림축제'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복지재단 상임이사 법여 스님, 센터장 대원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철 군의장을 등 지역 기관장들과 다문화가족 등 1,300여 명이 동참했다.

축제에서는 '캄보디아의 압살라 춤' 등 6개국 문화체험과 '베트남 찹쌀밥' '필리핀 잡채' 등 7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제공됐으며, 중국의 전통혼례 재연 등 다채로운 공연무대가 꾸며졌다. 행사장 밖 18개 부스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올해 14회째 개최되는 어울림축제는 오롯이 다문화가족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축제이며, 앞으로 너와 나, 국가와 인종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음껏 웃고 즐기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불심 담은 한마음 체육대회

대구불교총연합회, 13일 행사 열어

대구지역 범불교종단연합체인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효광)와 신도회는 10월 13일 대구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불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체육대회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천태종 대성사 주지 영제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청장 정효 정사,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선지 스님, 대구불교총연합회 서중호 신도회장 등 대구지역 각 종단과 신행단체들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열림의 장, 화합의 장, 나눔의 장을 통해 각종 운동경기와 축하공연, 노래자랑, 응원전 등이 진행됐다.

대구불교총연합회장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아름다운 초가을에 '나'라는 생각, 아상을 버리고 반목과 갈등은 놓아버리고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불이(不二)의 정신으로 소통하고, 화합해 행복한 야단법석(野壇法席)을 함께 만들도록 하자"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유교식 제례문화 불교식 변화 필요"

Interview

'영혼의 힐링하우스' 개원한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사에 대한 유교적 관념
불교계에도 여전히 남아
독경 · 법문 문화로 바꿔야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지금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교도 어쩔 수 없이 유교식 제사를 해왔죠. 하지만 이제 제사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영혼의 힐링하우스를 개원했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에 꽤 독특한 고인추모관이 생겼다.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10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롭게 문을 연 백양사 추모관 '영혼의 힐링하우스'의 건립 취지를 이 같이 밝혔다.

'영혼의 힐링하우스'는 기존 명부전과 납골당이던 영각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추모관이다. 세계적인 건축가로 평가받는 윤경식 한국건축 회장이 설계와 시공을 총괄해 전통과 현대, 삶과 죽음, 추모와 예술이 교차하는 경계를 표현했다. 윤 회장은 힐링하우스가 공간에 떠서 자유롭게 부유하는 느낌을 주고자 콘셉트를 '부(浮)-뜨다'로 정했다. 건물 밖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존 전각 양식을 탈피해 전면 유리를 사용하는 한편, 하단에 조명을 설치해 건물이 지면으로부터 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토진 스님은 "과거 불교에서는 스님이 입적하면 부도를, 신도가 별세하면 탑을 세웠다. 하지만 불자들은 여전히 제사상을 차리고, 지방을 쓰고, 심지어 문을 열어 놓은 채 조상 영혼이 들어오길 바라기도 한다"면서 "이제는 제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제사문화가 변했다. 경전을 독송하고, 법문을 듣는 불교식 제사문화 확산에 힐링하우스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양사 영혼의 힐링하우스는 일반적인 납골당과 달리 납골함 디자인을 원뿔형으로 제작했다. 토진 스님에 따르면 납골함은 미얀마 쉐다곤 파고다에서 영감을 얻었다. 수많은 황금탑들을 보면서 원뿔형태의 납골을 고안했으며, 총 432기의 납골이 가능하다.

토진 스님은 "건물 내에서 고인의 생전 음성과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추가하고, 냉난방시설을 가동해 사시사철 언제든지 가족들이 찾아오기 편하게 배려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상주하는 지객을 배치해 추모관을 관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도록 할 것"이라고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힐링하우스 개관은 10월 20일 제22회 장성백양단풍축제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동규 시인의 헌시를 시작으로 하상호 서화 아티스트, 이주은 명창, 이완이 첼리스트, 이수진 현대무용가, 이현정 피아니스트 등이 무대에 올라 힐링하우스 개관을 기념했다.

"월 1만원, 자연환경 살립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후원 회원 200명 확대 목표
10월 22일부터 1달 집중홍보



"반(反)생명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청정한 사회로 전환하려는 불교환경연대는 1달 간 정기후원 회원배가캠페인을 집중 시행합니다. 월 '1만원'의 후원금은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며, '1만배' 수행과 같은 지극한 마음의 발로입니다."

불교계 환경운동단체인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신규회원 집중홍보기간으로 삼고, 회원배가 캠페인 '만배의 지극함을 만원의 정성으로'를 전개한다. 유정길 운영위원장〈사진〉은 10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후원 및 가입 동참을 독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기금모금을 매개로 기존 회원들과 소통하는 한편, 신규회원을 확충하고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270명 이상 신규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교환경연대의 존재감을 알리고, 기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자는 취지도 있다.

"현재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계 NGO 단체는 활동분야, 개체 수 등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 내 희망과 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앞으로 다른 단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불교 융성의 기회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환경운동을 펼치겠습니다."

10 · 11월은 NGO단체들의 각종 모금행사가 집중되는 기간이다. 불교환경연대는 별도의 행사 없이 기금모연 캠페인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은 전화 등을 통해 그동안 듣지 못한 기존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부구성원들의 권선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배가캠페인은 기존 회원에 직접 전화로 안내하는 방식과 예비 회원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온라인 홍보 방식으로 나뉜다"며 "기 회원은 후원금 5천원 증액 및 신규회원 1명 증원을, 임원은 2만원을 추가후원하고 3명 회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200명을 목표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커피 2잔 가격이 모여 온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쌓는 일에 쓰일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사찰인 '녹색사찰' 만들기, 4대강을 살리는 나무심기 방생, 사찰을 매개로 한 청소년 환경교육 등 활동을 통해 불교계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02)720-1654

김지원 기자

"인니 재난피해 복구를"

조계사 · 화계사, 인도네시아 성금 전달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화계사(주지 수암)는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지진 · 쓰나미 피해 성금으로 각각 2000만, 1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사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도네시아 구호 모금사업 시작까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착실히 준비해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

원당암 중앙절 천도법회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법사로



해인사 원당암은 10월 17일 중앙절을 맞아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이 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경내 원당에서 선망부모 조상영가 합동천도법회를 개최했다. 방장 원각 스님은 "나라는 자가의 주장을 내려놓고 머문 바 없는 큰마음 내어, 너와 내가 없는 본래의 그 마음자리를 찾아 생사의 도리를 깨우쳐 지혜의 복덕을 닦아 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3회 염불정진 수복대회

한국불교법사대학, 청주 청국사서 봉행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10월 13일 청주 청국사에서 제3회 염불정진 수복대회를 봉행했다. 재학생을 비롯해 동문 등 200여 명이 참가한 행사에서 지일 스님은 "법사의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염불을 통해 자기 본성을 찾고, 섭화중생의 법력훈습을 증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